

## 김수영 시에 나타난 공간연구

-근대 표상과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김원경\*

### -차 례-

1. 서론
2. 도시 공간의 혼종성; 근대 표상의 습합
3. 헤테로토피아와 공간의 (재)배치
4. 결론

[국문초록]

김수영 시에서 시적 주체는 내적 상태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감수성을 발견하여 이를 시적 표현으로 구현하려 한다. 새로운 감수성은 도시 공간에서 근대 이후 인식된 여러 상흔들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공간, 불안과 허무의 근원을 밝히는 도전이다. 호미 바바의 ‘혼종성’ 개념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김수영 시에서는 “혼종적 주체”로 명명되는 내적 갈등과 결부된 정체성의 겹침과 착종을 통해 근대적 삶의 오류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김수영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근대 표상’과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면모를 지닌 김수영 시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한 의지를 재탐색한다. 김수영은 도시 공간을 통해 미적 근대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미적 가치를 해명하기 위해 이질적이고 혼종에 면모를 지닌 김수영 시의 특징들을 분석한다. 이로써, 김수영 시에서 나타나는 과편적 공간이 만들어낸 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 김수영, 사이 공간, 혼종성, 근대 표상, 헤테로토피아, 도시공간, 미적 근대성

## 1. 서론

김수영의 시에서 도시 공간은 ‘속도감’으로 표출된다. 김수영 시에서는 거리, 다방, 여관, 국립도서관, 헬리콥터, 자동차 등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도시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김수영의 시에서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에 의해 공허하게 채워져 있다.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물상들은 바쁜 속도로 끝없이 돌고 돌며 이동한다. 이러한 속도는 자본주의의 속도와 맞물리며, 도시 공간을 허무와 우울의 공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김수영은 도시 공간에서 경험되는 허무와 우울의 상념을 ‘속도’와 ‘시간성’을 통해 형상화한다.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물상들은 빠른 속도로 끝없이 이동하며, 시적 주체는 이러한 물상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한다. 이렇듯 김수영의 도시 공간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속도’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 물상들은 속도뿐만 아니라 시적 주체의 과거와도 연결된다. 즉 도시 공간은 식민지 시대의 도시적 표상과도 이어진다. 도시는 그 자체로 되찾아야 하는 과거이자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현재이며 변모하는 현실과 같은 미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수영이 인식하고 있는 도시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항 대립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그의 시 세계에 대해 모더니즘적 해명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의 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내적 분열 상태를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時代に 뒤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뒤떨어지느냐가 무서운 것”<sup>1)</sup>이라는 그의 욕성은 미래에 대한 김수영의 내적 분열 상태의 강박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의 시·공간 속에서는 ‘강박적 변화의 동력’들이 감지해내고 있는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자기 부정과 혁신에 대한 신념이 담보된 ‘투신’의 형태로 시대의 움직임을 직시하며 차이, 사이, 교차 등의 운동성을 지닌 시적 대상들을 통해 시대를 이기고자 하는 김수영의 역동적인 저항 의식은 시대의 현실에 이의를 제기<sup>2)</sup>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였다.

1) 김수영, 이영준 편, 「광야」,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153쪽. 이후 김수영 글에 대한 인용은 『전집1』 혹은 『전집2』 페이지쪽으로 표기한다.

이와 같은 시적 주체의 태도는 지속적인 변모가 가능한 동력을 획득하여 근대가 가진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근대를 확립하여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지속적인 변모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가 폭력적이고 불안한 현실 속 경험과 직결<sup>3)</sup>되고 있음은 그의 시적 주체에 관해 새로운 시선이 담보된 연구가 현대시의 현대성에 대한 제반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수영이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 섬세하면서도 혁명적인 시선을 가진 시인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시적 주체의 체험은 그의 시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에서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그의 시의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질서를 구축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위계가 해체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로써 발생한 파편적 공간으로 증명하고자 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김수영의 시에서 시적 주체는 내적 상태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감수성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감수성은 시적 주체의 의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시도라 볼 수 있다. 시적 주체는 새로운 감각의 인식을 통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열게 한다. 김수영의 시에서 도시 공간은 근대 이후 인식된 여러 상흔에 대한 실존적 경험을 고백하는 공간이다. 그는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핍들을 직시하고, 현실을 딛고 혁신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했다. 이러한 시적 태도는 근대적 삶의 많은 오류를 명명하듯 주체의 내적 갈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근본적 불안과 허무의 근원을 밝히는 일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미 바바가 언급한 '혼종성'<sup>4)</sup> 개념을 도시공간에 적용해 볼 만하다. 호미 바바는 일의적으로 경계 지어진 내부와 외부(자아와

2) 김지선, 『김수영 시의 시적 주체』, 문학과지성사, 2011, 85쪽.

3) \_\_\_\_\_, 위의 책, 112쪽.

4) 호미 바바(Homi Bhabha)는 '혼종성(Hybridity)'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 민족, 종교 등의 요소가 충돌하고 뒤섞여 새로운 문화 현상을 낳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혼종성은 대립적인 문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탄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9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4쪽.)

타자) 대신, 양자의 겹침과 착종을 부각시키는 ‘혼종성’을 정치, 경제, 문화의 생산적 토대이자 결과로 개념화 한다.

예컨대 그는 탈식민적 정체성에 관해 ‘사이에 낀(in-between)’ 위치, 존재로 설명<sup>5)</sup>하는데, 김수영 시의 도시 공간은 이 같은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주체와 타자’, ‘근대와 전근대’의 겹침과 착종을 읽어내는 주체를 ‘사이에 낀’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혼종적 주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수영이 도시 공간에서 정동화한 내적 분열 상태를 해명할 수 있다. 가령 김수영은 「헬리콥터」, 「거리1」, 「거리2」, 「국립도서관」, 「구름의 파수병」 등의 시편에서 도시 공간의 혼종적 읽기를 통해 미적 근대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도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시적 미학을 창출하고, 근대적 삶의 오류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김수영 도시공간에 나타난 ‘근대표상’과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의 시론을 통해 이질적이고 혼종에 면모를 지닌 그의 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김수영의 의지를 재탐색할 것이며, 그의 인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위계가 해체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로써 발생한 파편적 공간으로 증명하고자 한 김수영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도시 공간의 혼종성; 근대 표상의 습합

김수영은 도시 공간을 “속도”와 “감각”의 관점으로 인지한다. 도시 공간에서 속도라는 운동성과 감각이라는 인지 기능이 종합되어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요소들로 형상화된다. 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리, 다방, 여관, 국립도서관, 헬리콥터, 자동차 등의 배경 요소들은 도시 공간으로 기능하며, 근대 도시의 속도와 역동성을 구상화해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기표들은 속도와 역동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속도

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2, 255쪽.

를 상징하는 기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김수영 시에서 동원된 공간 조작들은 고정된 공간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도시 공간이 허무하고 우울한 시적 정서를 재생산하고 충동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수영이 지니고 있던 도시에 대한 감각이자, ‘새로운 미적 체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륙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었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벼웁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  
 남의 말을 하여 왔으며  
 그것도 간신히 더듬는 목소리로밖에는 못해 왔기 때문이다  
 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生理)이다

1950년 7월 이후에 헬리콥터는  
 이 나라의 비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  
 이것이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  
 그래도 제트기나 카고보다는 늦게 나왔다  
 그렇지만 린드버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諷刺)를 그의 기체(機體) 안에 느끼고야 만다

- 김수영, 「헬리콥터」 부분6)

김수영 시에서는 주체와 타자, 근대와 전근대의 겹침과 착종이 혼재

6) 『전집1』, 118쪽.

한 ‘혼종적 주체’로 표현된다. 특히, “헬리콥터”는 서양의 문물로서 ‘자유’와 ‘비에’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동양의 후진성에 대한 반성적인 은유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는 시 전체의 의미를 확대하고 긴장감을 부여하는 가운데, 식민 제국주의의 지배 담론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화자는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인식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호미 바바는 어떤 정체성이나 문화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교섭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시적 주체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대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다. 「헬리콥터」에서는 이런 ‘사이에 낀(in-between)’ 정체성<sup>7)</sup>이 “지금 동양의 풍자(諷刺)를 그의 기체(機體) 안에 느끼고야 만다”라는 구문에서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사이에 낀 화자(동양의 후진성)는 “헬리콥터”를 통해 “자유”와 “비에”의 양가성을 느낀다. 비상의 자유로움과 착륙의 비애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헬리콥터”의 공간 지표와 풍자 당할 수밖에 없는 동양의 처지가 뒤엉키면서, “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을 가시화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비에’의 양가성은 상승과 하강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속도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화자가 서양 문명의 상징인 ‘헬리콥터’를 ‘설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매한 나라’의 화자는 서양이라는 타자를 통해 저 자신의 주체성을 ‘설운 동물’로 재인식한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는 ‘설운 동물’과 같은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서양에 의해 부여받은 타자성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 맥락을 강화하는 측면까지 「헬리콥터」에서는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와보니

나의 눈을 흡수하는 모든 물건

7) 공현진, 「전후 세대 시의 서울 표상 연구- 김수영·신동엽·김종삼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37쪽.

그중에도

빈 사무실에 놓인 무심한  
집물 이것저것

누가 찾아오지나 앓을까 망설이면서  
앉아 있는 마음  
여기는 도회의 중심지  
고개를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이  
태연하다  
—일은 나를 부르는 듯이  
내가 일 위에 앉아 있는 듯이  
그러나 필경 내가 일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일을 끌고 가는 것은 나다

현 옷과 낡은 구두가 그리 모양수통하지 않다 느끼면서  
나는 옛날에 죽은 친구를  
잠시 생각한다

벽 위에 걸어 놓은 지도가  
한없이 푸르다  
이 푸른 바다와 산과 들 위에  
화려한 태양이 날개를 펴고 걸어가는 것이다

구름도 필요 없고  
항구가 없어도 아쉽지 않은  
내가 바로 바라다보는  
저 허연 석회 천정—  
저것도  
꿈이 아닌 꿈을 가리키는  
내일의 지도다

스으라여

너는 이 세상을 점으로 가리켰지만

나는  
 나의 눈을 찌르는 이 따가운 가옥과  
 집물과 사람들의 음성과 거리의 소리들을  
 커다란 해양의 한구석을 차지하는  
 조그마한 물방울로  
 그려보려 하는데  
 차라리 어떠할까  
 —이것은 구차한 선비의 보잘것없는 일일 것인가

-김수영, 「거리1」 전문<sup>8)</sup>

김수영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리”는 번잡한 현실을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존재를 재인식하는 공간<sup>9)</sup>이자 근대를 잘 드러내는 표상이다. 거리는 시인의 내면과 외부를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는 ‘사이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시인은 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또한, 거리는 시적 주체가 현실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공간이다. 인용 시에서 화자가 보는 풍경은 “허연 석회 천정”으로 표상된다. 온전한 꿈이나 소망으로 내일을 희망하지 못하고 “꿈이 아닌 꿈을 가리키는” 불완전한 상태 남아 있다. 이 공간은 “따가운 가옥”, “집물”, “사람들의 음성”, “거리의 소리”와 같이 고정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거나 흘러가버리는 속성으로 인해서다. 이는 “도시가 지닌 부정적 면모”<sup>10)</sup>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도”의 의미이다. “지도”란 근대적 시각 체계의 산물이자 근대의 표상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도가 온전히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대적 시선의 주체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특권적인 시점에 위치한다

8) 『전집1』, 98쪽.

9) 김지율, 「1950년대 김수영과 김춘수 시의 헤테로토피아」, 『한국문학논총』 제91집, 한국문학회, 2022, 470쪽.

10) 류순태, 「1950년대 김수영 시의 ‘위대성’ 추구에서 드러난 관점 변화 연구 - R. W. Emerson 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6집, 우리문학회, 2015, 240쪽.

는 근거에 기반을 둔다. 이는 근대적 시선의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지도는 세계를 일정 비율로 압축하여 표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공간 표상의 반영일 것이다. 이러한 지도 속의 공간은 ‘균질성’을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생성한다. 공간의 균질성이 발생하는 조건은 공간 내 어떤 지점에서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과 현재 위치에서의 공간 인식이 다른 위치에서의 공간 인식과 동일한 원리 아래서 같게 인지<sup>11)</sup>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적 시선의 권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지도가 세계를 일정 비율로 압축하여 표상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대적 공간 표상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지도 안에 재현된 공간은 변하지 않는 균질한 근대적 공간의 매개체인데 반해,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는 균질한 공간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탈중심적이고 해체적인 ‘거리’는 도시인들의 생활공간이자, 그 너머를 상상하는 근대적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도시 공간은 우연하고 덧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도시 속의 현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우연하고 일시적인 만남은 현재의 모습으로 인식되며, 이는 이 시대의 부정이나 저항을 의미한다. 김수영은 이러한 우연성, 일시성, 덧없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영원성을 부여함으로써<sup>12)</sup>, 이로 인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의미 없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프차를 타고 가는 어느 젊은 사람이  
 유쾌한 표정으로 활발하게 길을 건너가는 나에게  
 인사를 한다  
 옛날의 동창생인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보았으나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  
 ○○부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은 과장이며 명사(名士)이다

11) 이봉일, 「개화기 문예에 나타난 ‘근대적 내면성’의 성립 과정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264쪽.

12) 권경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의 시간과 공간 인식」, 『수행인문학』 제35권,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5, 18쪽.

...(중략)...

여기는 좁은 서울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거리의 한 모퉁이  
 우울 대신에 수많은 기폭을 흔드는 쾌활  
 잊어버린 수많은 시편(詩篇)을 밟고 가는 길가에  
 영광의 집들이여 점포여 역사여  
 바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우건만  
 어디까지 명랑한 나의 마음이나  
 구두여 양복이여 노점상이여  
 인쇄소여 입장권이여 부채(負債)여 여인이여  
 그리고 여인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그네여  
 돈을 버는 거리의 부인들의 어색한 모습이여

-김수영, 「거리2」 부분<sup>13)</sup>

이 시에서 대도시의 풍경은 특히 거리의 사람들과 즐비한 상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거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본다. “돈을 버는 거리의 부인”의 독기 어린 눈, “지프차를 타고 가는 어느 젊은 사람”의 유쾌한 표정 등 그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을 포착하여 시에 그려 넣는다. 또한 도시의 풍경이나 건물들을 그리는 방식은 도시를 빠르게 지나는 도시인의 ‘속도’<sup>14)</sup>로 나타난다.

김수영은 거리를 통해 도시의 풍경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시적으로 그려내며, 이를 통해 근대적 가치와 척도에 관해 비판한다. 특히, 시적 실험, 새로움, 예술의 자율성 등과 같은 이전 세대의 모더니즘 문학에서 보이던 딜레마를 벗어나 김수영 시인은

13) 『전집1』, 107-110쪽.

14) 여태천은 김수영이 근대기술문명과 속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근대기술문명의 과잉속도가 정치권력과 연결되어 우리의 일상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비판하며 속도는 근대의 속도에 저항하는 반근대 미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태천, 「김수영의 시와 속도의 정치학」, 『비교한국학』 25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188~220쪽 참고.)

예술과 삶, 예술과 정치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고자 시를 “온몸”<sup>15)</sup>으로 밀고 나간다. 이러한 김수영의 온몸으로서의 시적 태도는 그가 지향하는 “현대성”과 다른 의미가 아니다. 김수영은 이러한 현대성을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투사하고, 윤리적이지만 못한 현실과 윤리적이지만 못한 시적 자아, 그리고 윤리적이지만 못한 시적 정황을 빈번하게 충돌시킨다. 여기서 미적 근대성은 예술적인 혁신과 함께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내포하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 3. 헤테로토피아와 공간의 (재)배치

주지하듯 1950년대 전후 문단은 전쟁으로 인한 상흔과 폐허로 가득 찬 이질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 주체들의 실존 문제가 가시화 된 시기이다. 주어진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과거를 소환하기도 하고, 겹친 시간 속에서 자기 주체를 건넌다는 것이 문학적 윤리이자 비전이기도 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를 횡단한 세대 문인들의 ‘혼종성’이란 현실을 응전하는 한 양상이기도 했다. 가령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유’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김수영은 1950년대를 “나는 절망 위에 산다. 나는 죽음 위에 산다. 이러한 신념이 없이는 나는 이 좁은 세상을 단 1분만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sup>16)</sup>라고 이 시기를 상기한다. 그는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서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그 현실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직시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그러한 변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혼종성의 문제만큼이나 공간 인식을 통한 새로움에 대한 동경과 결의의 문제는 김수영의 시를 읽는 또 다른 비평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러려면 우선 그의 시론을 경유해야 보아야 한다.

김수영은 자신의 시가 가진 본질적 모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는데 고정된 사실로 보고 있던 시간의 흐름을 순간의 포착으로 ‘전

15) 「시여 침을 뱉어라」, 『전집2』, 498쪽.

16) 「나에게도 취미가 있다면」, 『전집2』, 83쪽.

환'한다. 고정되었다고 생각한 흘러간 시간 즉 과거를 더이상 극복해야 하는 모순이 아니라 '순간의 포착'이라는 시적 인식은 김수영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시를 재해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인식적 공간으로 진입을 유도한다. 김수영은 자신의 시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시적 인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시 세계를 '새로움'이란 슬로건으로 재도약하여 그의 시를 새로운 지층으로 그 위치를 달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 김수영 시의 '역동적 변모성'은 그의 시 세계의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지향하게 된다.

그의 후기 시에서 이런 특징들이 훨씬 많이 조명되지만, 시간에 대한 그의 인식 변화는 그의 시 전반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의미 표출의 양상을 시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와 같은 김수영의 의식 변화는 그의 새로운 미학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시공간에 대한 해명을 총체적 검토를 통해 재정립해야 기존의 논의와 구별할 수 있는 미학적 담론의 규정이 가능하다.

시적 인식이란 새로운 진실(즉 새로운 리얼리티)의 발견이며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각도의 발견인데 ... (중략)... 인식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백 번, 천 번, 만 번이라도 되풀이해 말하고 싶다.

- 김수영, 「시적 인식의 새로움」<sup>17)</sup>

그가 자신의 시론에서 밝히는 “새로운 리얼리티”는 사물을 인지하는 새로운 지각적 지평의 개방이라 해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적 인식에 대한 그의 변화는 기존 시에 대한 김수영 스스로 재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연유와 밀접한 영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발현되고 있는 난해성에 대해 자신의 새로운 발견과 자신의 시적 미학을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했다. 즉 “내용적·형식적 의의를 조명하는 가장 상위 범주의 이념이자, 시의 현대적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sup>18)</sup>

17) 『전집 2』, 652쪽.

는 것이다. 이는 그가 앞으로 쓰는 시 세계에서 추구하는 미적 인식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며, 그의 「반시론」에서 부르짖었던 “더 큰 싸움, 더 큰 싸움, 더, 더, 더 큰 싸움”<sup>19)</sup>의 진정한 의미 발현으로도, 대입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식적 변형의 요소는 그의 시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의미적 변형도 동시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시 세계에서는 그가 느끼고 경험한 현실이 시적 상상력을 통해 공명하며 호소의 정서가 구체적인 감각으로 전이되는 사건이 경험된다. 그의 시적 미학에 대한 발견은 독자의 감각을 관통하는 그의 목소리의 특수성이 어떠한 동력을 근원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시선이 동반될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김수영 문학을 ‘운동성’ 그리고 ‘변형적 면모 상상’을 통해 그의 시적 상상력이 동반된 것이 그의 미학적 지평의 고유 영역이라고 식별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자유에 대한 문제’는 그의 미학적 사유가 전면적으로 증축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김수영 자신 역시 본인의 미학적 개념을 (재)전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방증으로 보인다. 그의 의식은 미학적 개념을 재전유하는 과정에서 그의 시적 미학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참조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이 보여주는 인식 변화는 현실에 대해 미학적 사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한국 시단을 향해 새로운 태동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즉 발화와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긴장감은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물리적 작용이며 그가 추구하는 세계를 향한 개진의 미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의 시적 태도는 다층적인 복잡성을 함의하는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시 내부의 언술 구조는 대상에 대한 관계성과 인식에 따라 중의적 해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예외적 변형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성립<sup>20)</sup>해 주고 있다. 그의 시에는 직

18) 강동호, 「현대성, 동시대성, 시대착오」, 『구보학보』 제31집, 구보학회, 2022, 281쪽.

19) 「반시론」, 『전집 2』, 516쪽.

20)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의하

접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적 주체의 의지로 판명될 수 있는 의미 영역에 따라 인식할 수 없었던 공간의 조건을 획득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그의 시적 언어는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내재한 미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유동성은 그의 시를 관통하고 있는 역동적인 이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공간을 사유하는 방식에 관한 논제로 김수영 시론을 고쳐 읽을 만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 공간은 헤테로토피아로서 위계적인 권력 구조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러한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병원이나 교도소, 도서관이나 거리 등과 같은 양가적 속성들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셸 푸코에 의하면 유토피아가 '장소 바깥에 있는 장소'라면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장소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반'이자 '이의제기'의 장소<sup>21)</sup>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장소들이 위계질서화 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의 공간은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이기에 이질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김수영 시의 헤테로토피아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현실의 이질적 경험과 관련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누구나 어른들은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우열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구태여 달관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에  
샘솟아 나오려는 이 설움은 무엇인가

---

면 공간은 자유와 개방, 움직임, 그리고 위협을 의미하며, 반면에 장소는 정지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안식처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김수영 시에서 시어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김수영의 시는 시공간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의미 구축을 비전화한다. 이-푸 투안,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1995, 17쪽 참조.

21)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142쪽.

모독당한 과거일까  
약탈된 소유권일까  
그대들 어린 학도들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연령의 넘지 못할 차이일까 ……

(중략)

시를 배반하고 사는  
너를 보는 설움은 피폐한 고향의 설움일지도 모른다  
예언자가 나지 않는 거리로 창이 난 이 도서관은  
창설의 의도부터가 풍자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 「국립도서관」 전문<sup>22)</sup>

주지하듯,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미셸 푸코가 1967년 발표한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사회의 일반적인 공간 체계 밖에 존재하는 장소”<sup>23)</sup>라고 정의했다. 그는 헤테로토피아를 현실에 대한 도전과 비판의 장소<sup>24)</sup>로 보았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의 위계와 규칙을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소이다. 1950년대 시인들은 헤테로토피아를 현실의 불확실성과 부정성을 표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이들은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현실의 모순과 폭력을 고발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꿨다. 예를 들어, 김수영의 시는 방, 거리, 여관, 도서관 등과 같은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현실의 불안과 고통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폭력을 고발하고 새

22) 『전집1』, 105-106쪽.

23) 미셸 푸코, 오성근 역,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사, 2020, 242쪽.

24) 헤테로토피아는 저항과 경계를 넘기는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사이 공간이며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적 특질이 한 장소에 겹쳐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환상성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셸 푸코, 위의 책, 35쪽 참조.)

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다.

인용 시 「국립도서관」에서 유사한 맥락이 읽힌다. 시에 나오는 ‘도서관’은 1950년대 당시 ‘국립도서관’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향유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도서관은 공부나 연구에 집중하는 학생이나 교수, 연구자들에게는 열린 공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닫혀 있는 공간’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오래된 서적들이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은 다른 시간들을 공유하고 기억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장소”<sup>25)</sup>로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밀폐된 공간인 동시에 지식과 정보가 누적된 질서의 공간이다. 하지만 그 장소는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내밀한 시간을 소유하며 새로운 희망이나 욕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수영은 도서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본다. 즉 관찰자<sup>26)</sup>로서 그는 “모독된 과거”나 “약탈된 소유권”과 같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대로 “홍분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인다.

(중략)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어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서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25) 김지율, 앞의 글, 469쪽.

26) 벤야민은 대도시에서의 충격에 대한 적응 상황을 다루며 이를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극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는’ 이론을 제안하며, 이러한 충격은 자극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관찰자는 의식이 방어하는 형태의 ‘긴장을 내장한 주체’ 혹은 ‘더 적게 경험(Erfahrung) 속으로 들어가게 된’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2, 126~128쪽 참조.)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구름의 파수병」 부분<sup>27)</sup>

「구름의 파수병」에서 화자는 산정에 있다. 이 시기 김수영은 구수동에 살았는데 이 집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 집에서 시인은 시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방 두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사는 현재의 실제 생활을 그는 썩스럽다고 말한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인의 삶을 살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에서처럼 시적 화자는 “거리에 나와 집을” 생각하고 “집에 앉아 거리를” 생각하며 자기 모순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김수영은 “시를 배반하며 사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집의 안과 밖의 모순된 공간을 통해 “산정(山頂)”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을 생각하며 일탈적인 심리를 경험한다. “산정”은 삶의 전투와 반역의 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묘사되며, 그곳에서 “날아간 제비”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김수영이 새로운 시적 세계를 찾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산정(山頂)은 끊임없이 생존의 길을 넘어 “반역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다. 이처럼 「구름의 파수병」에서 산정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시인의 욕망을 상징한다. 이런 가운데,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이란 시인은 현실에 안주

27) 『전집1』, 142-143쪽.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반역하고, 새로운 시적 세계를 찾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이자 근대 표상인 ‘도서관’, ‘거리’, ‘산정’은 현실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억압에 반대하여 다양한 이상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주어진 세계에서 ‘자유’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김수영에게 근대는 인간의 기본이 가져야 할 자유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헤테로토피아는 이러한 근대적 부조리함을 넘어서, 다른 가능성과 공간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의 부조리함을 성찰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시편들은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정신의 고양을 지속적으로 추동했던 김수영의 미의식이 드러나는 가편들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김수영 시에서 새로운 감수성은 도시 공간에서 파편적 공간이 만들어낸 진실성의 문제로 교환하여 논구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공간은 근대 이후 인식된 여러 상흔들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공간이자 불안과 허무의 근원을 밝히는 도전으로 읽을 수 있다. 김수영은 내적 갈등과 결부된 정체성의 겹침과 착종의 문제를 통해 근대적 삶의 오류들을 극복해내는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김수영의 시에서 나타난 ‘근대 표상’과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을 분석했다. 그의 시에서는 병원이나 교도소, 도서관이나 거리, 산정과 구름, 혹은 헬리콥터와 같은 물상들까지 양가적 속성들이 공존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표상된 도시 공간마다 혼종적 특징을 넘어서 헤테로토피아로서 실제하는 현실공간과 혼재된 공간인 동시에 현실을 넘어서는 저항의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김수영은 이를 통해 시인식의 새로운 개척하려 했다.

1950년대 전쟁 시기에 활동한 시인 김수영은 폐허의 이질적인 공간

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혼종적인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혼잡한 실제 공간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김수영은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서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그 현실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폐허의 상흔이 자기 인식의 고양된 형태로 거듭났던 것이다.

특히 김수영의 도시 시편 「헬리콥터」, 「거리1」, 「거리2」, 「국립도서관」, 「구름의 파수병」 등은 도시 공간의 혼종적 읽기를 통해 미적 근대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방증이다. 그는 도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시적 미학을 창출하고, 근대적 삶의 오류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Abstract]

## The Study of Space in the Poetry of Kim Su-yeong

-On Modern Representation and Heterotopia

Kim, Wonkyoung

(Kyung hee University humanitas college)

In Kim Su-young's poetry, the poetic subject seeks to discover new sensitivity through internal states and experiences, and attempts to express them as poetic forms. The new sensitivity pertains to experiences of various wounds recognized since modernity in urban spaces, and the challenge of confessing anxieties and vacuity. Applying Homi K. Bhabha's concept of hybridity to urban spaces, Kim Su-young aims to overcome the faults of modern life by exploring the overlap and intersection of identity and internal conflicts, called the "hybrid subject".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paper analyzes the "modern symbol" and "heterotopia" in Kim Su-young's urban space, and reexamines the will to reach the ultimate destination in Kim Su-young's poetry characterized by heterogeneity and hybridity. Kim Su-young sought to embody the values of aesthetic modernity through urban spaces, an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Kim Su-young's poetry with its heterogeneity and hybridity in order to explain these aesthetic values.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truth created by the fragmented space represented in Kim Su-young's poetry.

**Key words** : Kim Soo-young, liminal space, hybridity, modern representation, heterotopia. Urban Space, Aesthetic Modernity.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수영,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 1, 2권, 민음사, 2018.

### ■단행본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사, 2020.

\_\_\_\_\_,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2.

이-푸 투안, 정영철 역,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199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2.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동호, 「현대성, 동시대성, 시대착오」, 『구보학보』 제31집, 구보학회, 2022.

공현진, 「전후 세대 시의 서울 표상 연구- 김수영·신동엽·김종삼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권경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의 시간과 공간 인식」, 『수행인문학』 제35권,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5.

김지선, 『김수영 시의 시적 주체』, 문학과지성사, 2011.

김지율, 「1950년대 김수영과 김춘수 시의 헤테로토피아」, 『한국문학논총』 제91집, 한국문학회, 2022.

류순태, 「1950년대 김수영 시의 '위대성' 추구에서 드러난 관점 변화 연구 - R. W. Emerson 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6집, 우리문학회, 2015.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39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봉일, 「개화기 문예에 나타난 '근대적 내면성'의 성립 과정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여태천, 「김수영의 시와 속도의 정치학」, 『비교한국학』 25권 1호, 2017.